

#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제 책상 위에 작은 공예품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돛단배입니다. 환상적인 꿈의 요트가 아니라 남태평양 섬의 가게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기념품 돛단배입니다. 나무 조각을 깎아서 만들었고 야자 나뭇잎을 말려 만든 작은 돛이 걸려있습니다. 너무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아서 과연 이걸 타고 바다에 떠서 갈 수 있을까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이 작은 배는 비누아투 라고 하는 남태평양의 작은 섬에서 온 것입니다. 작년 저희 134차 캐나다장로교단 총회에 손님으로 오신 분들이 선물한 것입니다. 이 배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지불한 희생을 기억하게 하는 아주 값진 기념품입니다.

약 160년 전에 존 게디 목사님과 부인 샬럿 여사가 비누아투를 향해 노바 스코샤를 떠났습니다. 이 부부는 남태평양 지역을 향한 복음의 열정을 가진 장로교회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배를 타고 세계를 돌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비누아투 라는 섬에 도착하는데 자그마치 3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섬에 도착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게디 목사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노바 스코샤 교인들이 이 슬픈 소식에 잠겨 있을 때에 이번에는 게디 목사의 동생이 비누아투를 위한 선교사로 나섰습니다. 그 동생도 섬에 도착하여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선교사의 순교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지역 주민들의 대다수가 기독교인이라는 간증을 듣습니다. 그들은 160년 전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의 열매들입니다.

저희 교회 사무실로 들어 오는 입구에 작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잭 맥킨토시 (한국명 맥인도) 목사님의 기념비인데 그의 몸을 화장한 재의 일부가 그아래 묻혀있습니다. 맥인도 목사님과 부인 베스 여사는 1961년에 낙스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일본에 사는 한국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캐나다를 떠났습

니다. 그곳에서 한국분들을 마치 자신의 형제 자매처럼 사랑하며 섬겼습니다. 재일동포들의 인권향상을 위해서 일본정부를 대상으로 한 진정서 제출을 포함한 많은 사역을 열정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길고도 지루한 법적 공방을 진행하면서 맥목사님의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건강으로 인해 2001년에 40년간의 선교사역을 마치고 부부가 함께 캐나다에 귀국하였습니다. 맥 목사님은 같은 해에 하나님 의 부르심을 받아 먼저 떠난 주님의 사람에게로 먼저 가셨습니다.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 교정 한복판에 돌로 만든 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벽의 대리석 표면에 시편 23편이 새겨져 있고 하청일 장로님의 이름도 새겨져 있습니다. 그는 캐나다에 이민 와서 밴쿠버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며 교회를 섬겼던 장로님입니다. 부부가 연변과기대에 가서 교수직원으로 자원하여 봉사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중국으로간다고 하는 결정은 그동안 이루어 온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계획해 온 안전하고도 편안한 은퇴 생활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도 떨어져야 했습니다. 연변과기대의 모든 교수요원은 자비량 선교사들입니다마는 하 장로님 부부는 그것을 선택하고 중국에 갔습니다. 연변의 생활환경은 외국인에게는 혹독한 것입니다. 특별히 겨울은 대단히 힘들니다. 그곳에서 사역하는 중에 하 장로님은 심장마비를 당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족들은 고인을 그가 사랑했던 중국 땅에 안장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하 장로님의 부인은 오늘도 연변에 남아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 장로님이 그 벽에 이름이 적힌 첫 일꾼입니다마는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의 이름이 새겨질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깨닫고 자

신을 거룩한 부르심 앞에 망설이지 않고 드렸던 많은 분들 가운데 몇 가지 예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앞으로의 결과가 어찌될 것인가를 알지 못한 채 섬겼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다음 세대를 위한 기초를 놓는다는 것과 이것이 자신들이 부름을 받은 이유라는 점입니다. 이 부르심은 때로 우리에게 궁극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 우리가 가진 것을 포기하는 희생, 내가 누구인가를 포기하는 희생입니다.

이번 달에 우리는 제 135차 캐나다 장로교단 총회를 모입니다. 우리 앞에 제출된 여러가지 안건을 다루기 위해서 함께 모일 때에 우리의 책임과 사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안전하고도 평탄한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기초를 놓기 위해서 모인다는 사실입니다.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들을 다루게 될 것이고 이어지는 끝이 없어 보이는 토론과 동의안, 개의안, 청원서 등등이 이어지면서 총대들은 이 문제에 과연 결론이 있겠는가 확신이 서지 않는 경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부르심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던 많은 우리의 동역자들이 지불한 가장 귀중한 희생에 의해 준비된 기초 위에 우리가 함께 서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위한 가장 합당한 결정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결정을 만들기 위해 모이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

